

전북 금융타운 조성 밑그림 그린다

금융산업발전위 개최 종합개발계획 방향 논의

전북도는 지난 1일 전북 금융산업 발전위원회를 열고 2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전북 금융타운 조성 및 연가금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연가금 농생명 특화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및 금

융중심지 개발계획 용역 추진에 맞추어 전북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도는 금융타운 조성을 통해 도내 금융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 1월 금융타운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여 '혁신도시 중심 연가금·농생명 금융거점 육성'을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하였으며 지난 9

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바탕으로 금융타운 조성 사업 추진체계, 재원조달과 관리, 운용방안 등 구체적인 금융타운 조성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타운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금융타운 조성 사업타당성 분석 및 종합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 구성,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전략 제시와 금융중심지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하

기 위해 '핀테크-금융타운 연계 추진 방향', '연가금 특화방안 강구', '금융타운 재원조달 방안', '금융관련 기관 유치', '금융중심지 지정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위원장)는 "전북의 금융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금융타운 조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간 전북도의 금융타운 조성 노력으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며 정부 부처의 협조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소방관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배달 지난 1일 전주시 완산구 동인교회 인근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아래우이웃 12세대 연탄5,000장)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환한 미소로 연탄을 나눠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도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첫 검출

급성 호흡기 감염 질환 손씻기 등 위생수칙 철저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 겨울 들어 도내에서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독감에 대한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고 도내 협력병원에서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표본감시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2017~2018 절기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표본감시 사업을 수행하던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건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1월 27일~11월 29일 사이에 전주, 부안 지역의 내원한 환자 19명의 검체 중에서 검출된 것으로 인플루엔자 A(H1N1)pdm09형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A(H1N1)pdm09형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H3N2)와 인플루엔자 B형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매년 검출되고 있는 바이러스로 2017

~2018절기가 시작된 후 도내에서는 처음 검출됐다.

인플루엔자는 급성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통상 12월과 1월 사이에 1차 유행이 있고, 다음해 3월과 4월에 2차 유행이 발생한다.

특히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이 일어나므로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과 기침 에티켓(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잘 지키고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은 피하는 것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진성 기자

주민 갈증해소... 수돗물 공급 '이상 무'

임실군, 관내 미급수 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속속 완료

임실군이 중점 추진한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이 속속 완료되면서 주민복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사용한 운암면 광석리 지역에 11월부터 지방상수도가 공급됐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갈수기 및 동절기에 지하수량 감소로 인해 군 급수차를 활용한 운반급수 등으로 부족수량을 해결하는 등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억여원을 투입해 기존 상수관로를 광석마을까지 3km를 연장, 15세대 약 30여명의 주민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게 됐다.

마을 간이상수도를 사용해 지속적인 단수와 용수 부족으로 큰 불편함을 호소했던 서부권 8개 마을의 속원도 말끔히 해소됐다.

군은 서부권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인 강진면, 덕치면 급수지역 방현마을 외

5개마을, 덕치면 신촌마을 외 1개소 등 총 8개 마을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완료했다.

군비 9억8천만원을 지원 받고 군비 4억2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3월 착공해 11월 완료했다.

마을안길까지 배수관로 7.7km를 확장하고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해 8개마을 180가구가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주거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심민 군수는 "관내 미급수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 사항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팀(☎640-2376)으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소비자행정 추진실적 표창 전북도 6년 연속 수상

전북도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2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행정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기관 표창(공정거래위원회장)을 6년 연속 수상했다.

전북지역에서는 1998년부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주관으로 매년 '전북소비자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 11월 3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진행했다.

전북도는 소비자불만 ZERO와 사업의 일환으로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감시단'을 운영하여 도내 등 록된 방문·전화권유·통신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 사업자 1만 532개소 모니터링을 실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전북도가 지역민의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실시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내년에도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소비자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이번 표창을 소비자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컴퓨터로 간편하게 하세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납세자 불편 해소

전북도 지난 1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를 은행에 방문해 수기 납부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간편하게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 징수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전자신고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다.

11월말까지 전라북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총 건수는 75만여건인데 이중 전자신고건수는 31만여건으로 42% 정도에 불과하여 전자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아직까지 납세의무자들이 국제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홈택스(국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수기 납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수기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만 가능하고 가상계좌나 신용 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함에 따라 업무과중, 착오인력으로 인한 이중 부과 및 수합확인 지연(1~2주) 등 불필요한 행정력낭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북도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하는 관내 7만여개 사업장에서 전자신고납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협회에 협조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및 전광판 게시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김양원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납세자는 편리하고 과세기관은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전자신고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